

# 환동해 문화와 문화연구방법의 역사적 고찰\*

송 완 범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교수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에 대신하여 - '環東海學'을 위한 제언 |
| II. 同海, 異名-東海, 環東海/日本海,<br>環日本海/靑海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론의 諸相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동해(East Sea), 환동해(East Sea Rim), 해양사(Oceanic History), 국제교류사(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해역(Sea Area), 환동해학(East Sea Rim Studies)

## 국 문 요 약

우리는 그 동안 '동해'라는 명칭이 일본인에게는 낯선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동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를 둘러싼 종합적인 지역연구인 '환동해학'이란 용어는 도발적이다. 왜냐하면 일본인에게에는 '환동해학'이라는 말은 그대로 '환일본해학'으로 등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대척적인 시점에서는 같은 바다를 두고 서로 확연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자체 중심의 연구활동은 국가 중심의 자원 개발이라는 이익 구조만을 남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자체 중심의 연구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학술적 시야에 바탕을 둔 학제적 연구로서 '환동해학'이나 '환일본해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양사(海洋史), 국제교류사(國際交流史) 시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서술과 인식은 거의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환동해지역 연구는 동해라는 바다를 주무대로 하는 개방된 해양사, 국제교류사적 시점에 설 때 올바르게 정립된다. 해양사, 국제교류사적 시야는 육지와 해양,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돕는다. 두 번째로 귀화인(歸化人), 도래인(渡來人), 유민(遺民)의 서술에서 얻는 시야 또한 중요하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19). 본고는 2011년 5월 20일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환동해지역연구센터가 주최한 <제4차 환동해 국내학술회의> (주제 : 새로운 지역학으로서의 環東海 海陸學)에서 발표한 논문("환동해문화와 문화연구방법-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논지를 보강하여 정리했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를 왕래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은 지배와 피지배 혹은 상하관계 속에서만 인식되는 것이 주류였다. 하지만 실제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더 나아가 중국대륙을 오가는 사람들은 교류와 공존의 시각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세 번째로 앞으로의 환동해학은 동해를 분리된 바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역(海域), 즉 연결된 바다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는 동해를 특정한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전체를 인식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동해학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전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해역사 연구를 하나의 연구방법론적 사례로 고찰할 수 있다.

## I. 머리말

지난 3월11일 일본의 동북지역의 먼 바다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을 부르는 호칭은 ‘東日本大震災’, 혹은 ‘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본’이란가 ‘동북지역의 태평양 먼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일본열도의 동쪽 바다와 관계가 많음을 알게 된다. 그럼 일본열도의 서쪽 바다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 상식적으로는 ‘서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일본 지도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서해’라고 표시된 곳은 없고, 일본열도의 서쪽 바다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또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바다의 이름이 일본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듯 ‘동해’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어디에 있는 바다(?)라는 인식이 어찌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선 위에 서자면 ‘동해’를 둘러싼 여러 지역 연구의 종합이라는 말로 들리는 ‘환동해학’이란 말은 매우 도발적이다. 왜냐하면 일본인에게는 ‘환동해학’이라는 말은 그대로 ‘환일본해학’으로 등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동해’에 관련된 행사가 거의 한국에서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의해 운용<sup>1)</sup>되고 있다면, ‘환일본해’와 관련된 행사는 니이가타(新潟)현과 도야마(富山)현에 의해 지배적으로 실시<sup>2)</sup>되고 있다.

1) 경상북도는 경북일보 부설 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국제세미나(주제: “연오랑세오녀, 환동해 문화교류의 뿌리”)에서 김화경은 기조강연문 “고대환동해 교류의 연오랑 세오녀”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일대의 문화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해도 좋을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상준의 “연오랑세오녀 설화의 현장”, 오카모토의 “연오랑세오녀 현장 중심의 신화연구”, 야마미즈 하루오의 “고대 환동해 문화교류와 연오랑세오녀”, 김경일의 “연오랑세오녀설화와 신화의 심리학적 이해” 등의 발표를 통해 연오랑세오녀를 학문적으로 부각시켰다. 토론자로 는 니시코리 아키라, 이정희, 김용우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정화는 ‘한·일간의 연오랑세오녀에 대한 연구는 1천 500여 년 전 문화의 뿌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며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연오랑세오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일보』, 2010년 10월 12일)

강원도는 환동해 출장소 홈페이지(<http://www.hwandonghae.gangwon.kr>)와 강원발전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ri.re.kr>) 참조.

이상과 같은 대척적인 시점에서는 같은 바다를 두고 서로 확연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위의 지자체 중심의 활동으로서는 언제나 나라를 대변하는 자원과 개발이라는 이익 구조<sup>3)</sup>만이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지자체 중심의 연구가 갖는 한계성 극복을 위한 학술적 시야<sup>4)</sup>에 바탕을 둔 학제적 연구<sup>5)</sup>로서의 ‘환동해학’이나 ‘환일본해

- 2) 니이가타(新潟)현; ‘北東아시아經濟會議’新潟의 매년 개최. 도야마(富山)현의 국제일본해정책과 내의 일본해학추진기구에 의하면 일본해학이란 일본해와 그 주변 및 관련지역 전체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공유하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생각하여 바다와의 관련을 축으로 그 자연·문화·역사·경제 등을 총합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창성하는 것과 함께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빛나는 생명이 넘치는 미래를 구상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일본해학이란 바다로부터의 시선에서 지역에서의 이해를 깊게 하면서 지구 전체의 장래를 전망하는 시도인 것이다. 연구 분야는 환일본해의 자연 환경(환일본해의 환경 변천과 예측), 환일본해의 교류(교류를 낳은 요인, 교류의 형태), 환일본해의 문화(환일본해 민족의 문화, 사상, 신앙), 환일본해의 위기와 공생(일본해 환경을 둘러싼 위기, 일본해와의 공생, 바다를 사이에 둔 공생) 등이라 한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는 회의, 심포지엄, 강좌, 대학과의 연계 사업, 출판 등 사업, 연구 조성사업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니이가타현 홈페이지( <http://www.nihonkaigaku.org>)를 참조할 것)
- 3) 미래전략연구원([www.kifs.org](http://www.kifs.org)) <미래전략포럼>의 원동욱의 발표문 “창지투 개발과 환동해권 경제의 미래”(2011. 8. 18.) 참조. 원동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원자바오 4세대 지도부의 출현과 함께 그간 낙후된 동북지역의 개발(동북진흥전략)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고 두만강유역의 북한 및 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초국경 연계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05년부터 동북진흥전략에 의거한 대외개방 확대조치로서 동해로의 출로 확보를 위해 북한과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러시아와 ‘육로-항만-세관 일체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2009년 8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두만강지역의 북·중·러 접경지역 연계개발을 내포하는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창지투(창춘長春, 지린吉林, 투먼圓們) 개발계획’을 출범시켰다. 중국이 이 계획을 바탕으로 북한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해상통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극동연해주지역은 물론이고 북한·몽골과 통하는 주요 육상수송루트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한국 및 일본과는 해상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4) 동해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연구한, 고대 이래의 한반도와 일본 간 항로로서 동해를 고찰한 『고대 환동해 교류사』(동북아역사재단 2010)를 들 수 있다. 이 저서는 『1부 고구려와 왜』와 『2부 발해와 일본』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전자에서는 서해와 동해 항로의 병용을 후자에서는 동해 항로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각론의 내용은 항로, 사람, 유적, 유물, 벽화, 도성, 선박, 신앙/호시(互市), 항사(港市), 도자(陶磁), 선조(造船), 항해신(航海神), 표류(漂流), 자료(資料) 등이다. 그 외 동해학에 대한 접근은 ‘동해학’이 주목을 요한다. 동해학은 새로운 학문체계로서 동해 지역의 각종 자원과 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을 학제간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010년 동국대(대외교류연구원 주최, 주제:<동해와 환동해 연구:학제간 융합 가능성 모색>)에서 개최한 학술회의를 살펴보면, 동해 지역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제로만 보는 단견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만 해도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 요청된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 하원호는 “동해와 환동해 지역은 수자원뿐만 아니라 메탄 하이드레이트·심층수 같은 각종 해저 자원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곳”이라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남북한 등으로 이해관계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동해 연구는 일본이 2007년부터 ‘일본해학’을 하나의 새로운 학문체계로 정립한 것에 비하면 늦은 편이다. 따라서 ‘동해학’은 일본해학에 맞대응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원호는 “동해 지역의 상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동해학을 정립하는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하원호의 “단한 육지에서 열린 바다로”, 이해은의 “동해 그리고 환동해”, 김윤배의 “바람과 해류를 따라 동해를 건넌 사람들” 등이 발표됐다. (“첫발 내디딘 ‘동해학’, 『중앙일보』, 2009년 12월 11일. 참조)

학'의 연구에는 아직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의 환동해지역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일련의 '환동해 국제학술대회'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은 인식 위에 서서 먼저 제2장에서는 같은 바다(同海), 다른 이름(異名)으로서의 東海와 環東海 그리고 日本海와 環日本海, 그 외에 동해와 일본해의 대안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첫 번째, 海洋史的·國際交流史的 시점에 대해, 두 번째로, 歸化人·渡來人·遺民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로 분리된 바다와 海域이라는 연결된 바다로 보는 관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환동해학'을 위한 제언으로서 몇 마디 덧붙이는 것에 의해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환동해학의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한 나름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 II. 同海, 異名-東海, 環東海/日本海, 環日本海/青海

한·중·일을 휘감는 바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주관적이다. 특히 일본열도를 둘러싼 바다는 북해라고 하면 오호츠크 해를 말하고, 서해라 하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동해와 남해, 황해를 포함하며 나아가 동지나해까지를, 그리고 남해라 하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만큼 비록 같은 바다(同海)라 하여도 명칭은 다를 수 있음(異名)을 숙지해야 한다.

이하의 그림에서처럼 한·중·일을 둘러싼 바다는 가까이서 부터 멀리 있는 바다까지 이런 저런 이름으로 불리는 바다인 것이다. 이러한 연결된 바다에 대한 인식을 함에 있어 제한된 어느 일정 바다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무리일지도 모른다.

5) 김운배에 따르면 '동해학'은 동해 및 남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지방,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등 동해지역의 자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학제 간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체계를 말하며, 동해학의 목적은 동해지역에서의 갈등과 극복을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학문체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은 1) 동해의 갈등구조 분석에 대한 전략적 요구, 2) 동해의 갈등구조에 대한 학문적 대안 모색 필요, 3) 동해와 환동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보축적을 하는 학문적 허브 필요라고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1) 학제 간 융합을 통한 현실의 인문학 모색, 2) 해양권 중심의 새로운 연구시각 확보, 3)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접근법의 교차, 4) 중심의 일원론에서 주변의 다원성으로, 5) 다원의 문화를 횡단하는 문명사적 이해, 6) 광범한 자료의 수집과 지역 간 교차분석을 통한 관점의 다원화, 7) 특수에서 보편으로 인문학 연구의 외연 확장이라 한다.

그 외에도 김운배는 해양순환의 인문학적 의미를 1)특수에서 보편으로 : 전 세계 대양의 축소판 '동해'(miniature ocean), 2)침묵의 바다에서 역동의 바다로 : 역동적인 해양순환 체계를 갖춘 '동해', 3)대립과 통합의 바다 : 대립과 통합의 해양순환시스템을 갖춘 '동해', 4)기후변화의 DMZ :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동해', 5)생존을 위한 재발견 : 지구온난화의 조절자 '동해'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권세은(2011), "일본의 환동해 구상 및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아태연구』, 제18권, 제2호, pp. 1-15 ; 권세은(2010), "지역연구 대상으로서 환동해 지역의 설정,"『아태연구』, 제17권, 제2호, pp. 23-38.



【지도】 한·중·일을 둘러싼 해역<sup>7)</sup>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해라 부르는 바다에 대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일본해는 ‘우라(속; 裏) 일본해’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모테(겉; 表) 일본해’는 태평

7) 桃木至朗 編(2008), “總說”,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목차 뒤 <그림1>)

양 쪽을 의미하게 된다.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씨<sup>8)</sup>에 의하면 ‘우라 일본해’라는 말은 ‘차별용어’라고 한다. 메이지 30년(1897)경부터 ‘우라 일본’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후진 지역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오모테’가 발달한 것이며 ‘우라’가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용어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해 측을 역사상으로 보자면 일찍이 선진 지역인 ‘오모테 현관’은 틀림없는 지금의 오사카(大坂)에 해당하는 나니와쓰(難波津)일 것이며, 규슈(九州) 북부의 하카타(博多)이기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일본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文化2년(1805) 러시아 제독 크루젠 슈타인이 나가사키(長崎)에 와서 당시 쇄국하고 있었던 일본에 대해 개국을 요구하러 온 것이다. 그가 귀국하는 길에 ‘일본해’라고 불렀다 한다.

또 근세에 『사이란이겐(采覽異言)』<sup>9)</sup>이라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가 쓴 책이 있었는데, 그 후 에도(江戸)시대 후기의 지리학자인 아마무라 사이스케(山村才助; 1770~1807년)가 손을 보아 쓴 책이 『訂正増採覽異言』<sup>10)</sup>이다. 여기에 ‘일본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은 享和 2년(1802)에 출판되었으니 러시아 제독의 1805년보다도 더 빠르다. 또 아마무라는 태평양을 ‘동일본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일본해를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

이렇듯 같은 바다이면서 서로 다른 이름이 우리가 동해라 부르는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東海’와 ‘環東海’는 또 다른 말로 ‘日本海’와 ‘環日本海’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영원한 숙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 3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 때 ‘평화의 바다’<sup>11)</sup>라는 식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 한반도의 서쪽 바다가 황해인 것에 착안하여 동쪽 바다를 ‘靑海’<sup>12)</sup>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보인다.

8) 해당 본문의 내용은 우에다의 강연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오사카 국제종교동지회 평성13년(2001)도 총회 기념강연, 『環日本海文化と東アジアの宗教 1』)

9) 아라이 하쿠세키가 1708년 포교를 위해 내일한 이태리 선교사를 심문하여 얻은 지식을 기초로 저술한 일본 최초의 조직적인 세계지리서이다. 마테오리치의 『神輿万国全図』와 네덜란드에서 만든 세계지도 등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전거를 들고 있다. 전권을 통하여 세계 각지의 지명과 그 외 지리적 호칭은 마테오리치의 한역에 의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리를 한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유명하다.

10) 아마무라 사이스케는 에도시대 후기의 일본에서 네덜란드어를 통해 수입된 서구의 학문과 문화를 수양하여 연구한 사람을 이르는 난학자(蘭學者)이며 지리학자이다. 이 책은 그가 아라이의 『采覽異言』을 개정 증보할 목적으로 1802년에 일본, 한문, 서양서 등 약 102종을 인용, 고찰하여 저술한 세계지리서이다. 서문에 이어 본문에는 제1권부터 제12권까지 여러 나라의 지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편에서 지동설을 소개하여 아라이의 천동설 소개에 대응하고 있다. 쇄국시대에 저술된 세계지리서 중,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1)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 베트남 한·일 정상회담 때 “동해바다를 한국은 동해라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당시 발언록을 청와대가 8일 공개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제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동해”는 대통령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9일. 참조.)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8/200701080174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08/2007010801748.html). (2011년 5월 10일 검색)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동해’와 ‘일본해’는 한동안 공존할 것 같다. 바다는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이 그 바다에 자기 논리에 따라 이름을 붙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 Ⅲ. 연구방법론의 諸相

이상과 같이 복잡한 바다를 연구하는 연구 방법론으로서는 어느 일부를 자신의 바다라는 폐쇄적인 시야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육지 중심의 일국사 혹은 국제교류사의 입장을 넘어선 해양사적 국제교류사적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 서면 역시 그 바다를 왕래하는 사람들에 관한 시야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닌 좀 더 넓은 시야에서의 이동이라는 시각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바다는 어느 특정의 바다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로서 바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하와 같이 ‘환동해학’을 생각하는 방법론으로써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1과 Ⅲ.2의 방법론에 관한 예시는 발표자의 이전 논고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고, Ⅲ.3)은 최근의 일본 해역사(海역史)에 관한 연구 방법론을 원용한 것이다.

#### 1. 해양사(海洋史)적, 국제교류사(國際交流史)적 시점

원래 이 글은 본인이 『여수시사』(제1-제5권)의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면서 『여수시사』<sup>13)</sup>의 집필과 교양서로서의 안내서<sup>14)</sup> 서술에 관여하는 과정에 종래와는 다른 시사 편찬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언한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종래의 원고에 크게 의지한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런 점에서 특정 지역의 고유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니 이해를 구해마지 않는다.

다만 이하에서 언급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사적 시점’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사적 시점에 선 ‘국제 교류사적 시점’은 ‘환동해학’을 생각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확신한다. 다시 말해 ‘환동해 지역’은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에 갇힌 지역으로서의 궁벽한 모습이 아니라 대양으로 뻗어가는 최전선(最前線)에 위치한 기회의 땅이 된다.

“먼저, ‘해양사적 시점’에서 여수를 생각해 보자. 같은 남도이면서도 여수가 속해 있는 동부 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에 위치한 목포, 신안 지역은 완도와 진도를 끼고 한국 해양사적의 중심 메카가 되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신안해저유물선’의 발굴로 시작되는 연이은 침몰선들의 발견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해양고고학’의 선구적 개척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2) 船橋洋一(2006), 『靑い海を求めて』, 朝日新聞社.

13) 여수시사편찬위원회 편(2010), 『여수시사 1-5권』, 동원인쇄.

14) 송완범(2010), “길라잡이 ; 여수를 펼치면 세계가 보인다.” 여수시 편 『여수를 펼치면 세계가 보인다』, 여수시문화원, pp. 12-24.

그렇지만 전남서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바다 즉 중국과 통하는 황해(서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바다로부터의 ‘해양사적 접근’의 연구는 너무나도 미약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긴 세월 동안 여수의 바다에 대한 접근이 조선시대의 이순신장군의 사적(史蹟) 중심으로 연구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 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순신장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여수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긴 하지만, 장군 이전과 이후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여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사관(史觀) 즉 ‘해양사적 접근’을 쉽 없이 시도하고 연구해야 한다. 남해 없는 서해에의 접근이란 있을 수 없다. 또 서해를 통과한 교류가 한반도 서부지역에 제한되어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쪽 해상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한 여수는 천혜적인 위치에서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 바다를 아우르는 해상교통의 결절점(結節點)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원시시대의 뗏목 수준의 황해에서부터 여수 앞에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다도해를 끼고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 증거는 여수 앞 바다의 섬들에 실로 많이 남아있다. 섬들의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패총과 토기류, 팔찌, 석기류 등의 신석기시대 유물들과 육지를 중심으로 한 고인돌과 동검들에는 청동기시대의 여수 지역을 넘어선 교류가 빈번했음을 웅변해준다.<sup>15)</sup> 이러한 문화를 구축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 역사상 초기문화인 야요이(彌生)문화(BC3세기부터 AD3세기)의 담당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요이인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좌우로 형성된 순천만과 여자만 그리고 광양만과 여수만은 세곡(稅穀)을 중앙으로 운반하는 바다의 하이웨이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부터 후삼국시대 견훤과 왕건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해상세력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sup>16)</sup> 이후 17세기 조선시대에는 네덜란드인인 하멜이 조선에 표착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14년이나 된다. 그 동안의 여행기가 바로 [하멜보고서(하멜표류기)라고도]이다. 그 기간 중에 여수에 약 4년간 머무르다(1663년2월-1666년9월) 일본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조선과 일본은 하멜의 조선 반환을 두고 많은 교류를 시도하기도 했다.<sup>17)</sup>

이상과 같은 신석기시대에서부터 보이는 여수지역의 인간 교류의 흔적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육지 중심, 즉 중앙에서 바라본 시점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사적 시점을 지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나아가 이러한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 ‘해양엑스포’가 여수에서 개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다.<sup>18)</sup> 드디어 여수는 ‘해양엑스포’를 계기로 바다를 매개체로 한 세계와의 소통을 오랜만에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제교류사적 시점’에서의 분석이다. 국제교류사를 이야기할 때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적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은 이제 상식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수를 일본열도와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높

15) 여수시사편찬위원회 편(2010), 『여수시사 1권』, 동원인쇄. 이 책에 게재된 ‘선사시대’ 참조.

16) 정청주(2010), “여수를 지킨 4인의 해양 영웅,” 여수시 편, 『여수를 펼치면 세계가 보인다』, 여수문화원.

17) 여수시사편찬위원회 편(2010), 앞의 책. 이 책에 게재된 “하멜과 여수” 참조.

18) 여수시사편찬위원회 편(2010), 앞의 책. 이 책에 게재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여수의 미래” 참조.



게 평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7세기말에 일본은 중국 당의 법률체제인 율(律; 지금의 형법)과 영(令; 지금의 행정법)을 국가통치의 기본으로 하여 ‘율령국가(律令國家)’를 건설하였는데, 그 유지를 위해 당과의 직통거래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 증거가 8세기와 9세기 전반까지 왕성하였던 ‘견당사(遣唐使)’과견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 공인 사절이었던 ‘견당사’ 중의 유학생이었던 원인(圓仁; 일본명은 엔닌)은 도합 9년간의 중국유학생생활(838~847)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귀중한 여행기를 남겼다. 거기에 따르면 원인은 847년에 9년간의 당나라 유학생생활을 정리하고 장보고와 인연이 많았던 신라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귀국길에 올랐다. 여행기에 의하면 남해의 섬에서 하루 만에 쓰시마가 멀리 보인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보는 한 여수의 안도(安島 혹은 雁島)에서 쓰시마로 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sup>19)</sup>

이로부터 일본열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에 가는 주요한 항로로서 [규슈(九州)-쓰시마-여수 안도-한반도의 서남해안-중국 산둥반도]라는 항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만약 이 지적이 바르다고 한다면, 이 항로는 9세기에 들어 개통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먼 옛날부터 존속했던 고대인들의 뱃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고대의 여수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의 무역선이 교차하고 조우하는 국제무역항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국제교류사적 시점’에서 여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지방사 기술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점이 보이게 되고, 이 새로운 시점을 바탕으로 중앙으로부터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여수로부터의 시점이 생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여수지역은 신라말기 견훤의 후백제에 속하였다가, 936년에 후백제가 망함에 따라 고려로 통합되었다. 이때 등장하는 강력한 해상 세력에 근거한 지방호족들의 모습에서 감추어진 여수의 본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일본 중앙정부의 세력 밖에 있었던 바다의 무법자 왜구(倭寇)의 발호로 인해 고려 중엽 이후 조선시대의 여수 지역은 섬과 해안가를 무시하는 공도(空島)정책 등에 의해 중앙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sup>20)</sup> 하지만 여수의 모습은 조선시대에 다시 새롭게 각광을 받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기나긴 ‘하극상의 시대’였던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야욕을 분쇄한 이순신의 등장에 의해서이다.<sup>21)</sup>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우수하고 강력했다고 해도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람들의 협력과 희생이 없이는 이순신 함대의 백전백승의 승전보는 얻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순신은 ‘만약 호남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뜻인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명언을 남긴 것이다. 이 말은 또 달리 말하자면 ‘만약 여수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로 대신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그 외에 여수가 ‘국제교류사적 시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

19) 여수시사편찬위원회 편(2010), 앞의 책. 이 책에 게재된 “통일신라시대” 참조.

20) 정청주(2010), “여수를 지킨 4인의 해양 영웅”, 여수시 편, 『여수를 펼치면 세계가 보인다』, 여수문화원.

21) 조운선(2010), “임진왜란의 중심, 여수” 여수시 편, 『여수를 펼치면 세계가 보인다』, 여수문화원.

민지로 화한 전후의 시기이다. 이순신의 승전의 고장이었던 여수지만, 중앙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의해 지역의 산하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여수지역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sup>22)</sup> 그 효시는 1905년의 거문도에 일본인 이주를 시작으로, 이듬 해 겨울부터 계속 증가되기 시작했다. 여수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한 일본인들은 아이치(愛知)현이나 히로시마(廣島)현, 혹은 시코쿠(四國) 출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들의 생업은 주로 어업이었다. 이들은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여수를 잊지 못해 ‘여수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적 시점’과 ‘국제교류사적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수는 비로소 다면적으로 과거와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으로 ‘환동해학’의 면에서도 중앙이라는 육지에서부터의 접근만이 아니라, 바다를 중심으로 ‘해양사적 시점’을 준비하고 이를 바탕에 두는 것에 의해 새로운 ‘국제 교류사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직 초보단계인 ‘환동해학’의 입론이 새로운 ‘해양시대’에 걸맞은 현실적 지침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이해에 입각했을 때 비로소 ‘환동해학’이라는 개방된 방법론의 정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 2. 귀화인(歸化人), 도래인(渡來人), 유민(遺民)

앞의 절이 ‘환동해학’이라는 방법론의 모색 차원의 시원이 되는 관점의 탐구였다면, 본절은 ‘환동해’ 지역을 제집처럼 왕래했던 사람들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동한 사람들을 보통 부르는 말로 ‘귀화인’과 ‘도래인’이 있는데, 그 사용 연유와 함께 제3의 개념으로서의 ‘유민’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 ‘환동해’를 가로질러 왕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도 다만 기왕의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종래의 원고를 기초로 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sup>23)</sup>

“일본고대사에서 일본열도 밖으로부터 유입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귀화인’ 혹은 ‘도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다만, 이러한 연구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연구의 착안점이 어디까지나 일본 입장에서의 연구라는 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적 규모 속에서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작업<sup>25)</sup>은 복안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7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혼란 속에서 생겨난 백제의 ‘유민’들은 이전에 도래한 많은 유입민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유

22) 여수시사편찬위원회 편(2010), 앞의 책. 이 책에 게재된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도시로서의 여수”, “일제시대 여수의 일본인들” 참조.

23) 송완범(2010), “일본 율령국가와 백제유민의 연구”,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고대 동아시아의 제편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 103-124.

24) 關晃(1956), 『歸化人』, 至文堂; 上田正昭(1966), 『歸化人』, 中公新書; 平野邦雄(1993),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25) 田中央生(2005), 『倭國と渡來人』, 吉川弘文館.

민'들은 돌아갈 장소를 상실한 사람들로 그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할 곳이라곤 동아시아에서 일본열도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절박한 것이었다.

이러한 '백제유민'을 전면에 내세워 종래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재편에 발맞추어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에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일본열도에서의 한반도 사람들의 흔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고대일본의 환골탈태, 즉 '일본율령국가'의 성립과 전개 그리고 변용에 있어 백제유민들이 끼친 영향과 양태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일찍이 동아시아의 고대사회가 '다민족사회'였음은 『隋書』<sup>26)</sup> 등의 사서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일국 내 여러 민족의 잡거 현상은 신라만의 사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신라 지역에 왜인의 잡거가 전혀 없었다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은 아닐까. 여러 민족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고대적'인 현상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 '다민족사회'에 대한 이해<sup>27)</sup>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일본열도 외부로부터의 사람들에 대한 일본사학계의 접근은 '歸化人'→'渡來人'→'歸化人'으로의 변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자면, 제2차 대전 중의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고 하는 식민사학의 한 종류인 '日鮮同祖論'<sup>28)</sup>적 접근을 벗어나 195·60년대 경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에 유입된 사람들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일컫는 말로서 '귀화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귀화인"은 바로 일본인이요, '귀화인'의 문화는 바로 일본문화이다<sup>29)</sup>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인과 일본의 역사 속의 일부라는 관점에서의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이 '귀화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근대적 차별성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도래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30)</sup>

하지만 1990년대에 들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의 단순한 이동이라는 의미를 갖는 역사성이 애매한 '도래인'이라는 말보다는 역시 '귀화인'의 표현이 부합하다는 논리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듯하다. 그래서 지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논문들 중에는 이 양자가 혼용되고 있고, 논자에 따라 입장에 따라 같은 글에서도 그 표현들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마저 눈에 띈다.

이상과 같이 고대적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단선적으로 어느 하나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과 살아가는 지역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한 국가를 넘어 좀 더 큰 지역적 단위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경우의 사

26) 田中史生(2005), 앞의 책. "新羅傳"에 의하면 "신라 내에는 중국과 고구려, 백제 출신자가 서로 뒤섞여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27) 田中史生(1997),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28) 金澤庄三郎(1978), 『日鮮同祖論』, 成甲書房.

29) 關晃(1956), 『歸化人』, 至文堂.

30) 金達壽(1970),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講談社.

람들이었겠지만, 우리는 이제까지의 고대상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첫 번째로, 고대일본에서 밖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 연구는 세키 아키라(關晃)<sup>31)</sup>,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sup>32)</sup>, 히라노 구니오(平野邦雄)<sup>33)</sup> 등에 의해 행해졌다. 이것이 바로 앞 절에서 언급한 ‘귀화인’과, ‘도래인’에서 다시 ‘귀화인’으로의 입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두 번째로, 개별적이고 세부적 연구로는 東北, 關東, 關西, 九州 하는 식의 지역적 구분에 의한 연구<sup>34)</sup>가 있다. 그 외에도 4세기-7세기와 이후 시기별로 나누는 시기별 접근에 의한 연구<sup>35)</sup>와 특정 씨족<sup>36)</sup>과 관련시키거나 고고학(考古學)적 성과와 관련<sup>37)</sup>된 주제별 접근도 있다. 단,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통된 연구 경향을 띤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 다음 절에서 ‘귀화인’과 ‘도래인’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귀화인’ 혹은 ‘도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고국 즉 모국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 왜국(倭國)에 왔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고국으로 다시 귀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는 돌아갈 모국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바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반 무렵에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가야, 백제, 고구려 지역의 망국민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망국민들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유민(遺民)’이라는 좀 더 가치중립적이고도 폭이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유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먼저 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동아시아에는 한 지역 내에 복수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잡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령 백제가 멸망했다고 해서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 모두를 과연 ‘백제인’이라는 단일 호칭으로 부를

31) 關晃(1956), 앞의 책.

32) 上田正昭(1966), 앞의 책.

33) 平野邦雄(1993), 앞의 책. 『日本書紀』의 용법에서 「歸化」, 「來歸」, 「投下」, 「化來」는 모두 オノツカラモウク, マウク라고 읽어 개념에 차이는 없다. 또 『古事記』에서는 세 번의 용례가 있는데 모두 「參渡來」라고 하고, マイワタリツ, マウク라고 읽는다. 이에 대하여 「貢」, 「獻」, 「上送」, 「貢獻」, 「遣」은 タテマツル, オクルとメス, モトム라고 읽어 일반적으로 한반도 삼국의 왕이 왜왕에 대하여 군사 원조 등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물품이나 지식인 혹은 기술자. 또는 타국의 포로 등을 「贈与」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貢」, 「獻」 등의 말이 해당 왕의 정치적 의사 또는 명령 강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증여되는 의미인 것에 대하여, 「歸化」는 동족 집단의 의사 혹은 권유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래(내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 외 고대 한반도의 사서인 『三國史記』에서의 용법에는 「來投」, 「亡人」이 많고, 「投亡」, 「流入」, 「亡人」, 「走人」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전란이나 기근 등에 의해 긴급 피난한 사람들의 유출 즉 타율적인 이동을 가리킨다.

34) 田中史生(2005), 앞의 책.

35) 宋潤圭(2003), 『古代日本の渡來勢力』, 街と暮らし社.

36) 김석형(1966), 『初期朝日關係研究』, 社会科学院出版社(초출 논문은, (1963) “삼한삼국 일본열도 내의 분국에 대하여”); 加藤謙吉(2002), 『大和の豪族と渡來人』, 吉川弘文館; 加藤謙吉(2002), 『大和政権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37) 花田勝広(2002), 『古代の鉄生産と渡來人』, 雄山閣.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남는다. 물론 가야와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는 표현으로서도 역시 고토(故土)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조금은 애매하지만 좀 더 유연한 ‘유민’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이렇듯, 비록 고대에 한정된 사람들의 이동이지만 귀화인 혹은 도래인으로 아니면 유민으로 불리는 범주의 사람들이 ‘동해’를 오가며 ‘환동해권’, 즉 일국의 국경을 넘나들었고, 또 이들을 규정하려는 노력 속에 ‘환동해권’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의 실체가 결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무조건적인 ‘환동해권’의 설정도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도 사상누각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닐까.

### 3. 분리된 바다, 해역(海域)으로 보는 연결된 바다

현대 역사학계는 1970년대 후반 내지 8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사, 여성사, 환경사 등의 새로운 영역의 성립, 일국주의 혹은 국민국가 사관이나 유럽 중심주의 사관의 극복,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한 ‘객관성’에의 의문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육지의 시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과는 다른 바다의 시점에서 ‘海域 아시아’라는 관점이 생겨났다.<sup>38)</sup> 다시 말해 ‘해역사’는 항해, 무역, 해적, 해상민이라는 바다의 세계 그 자체의 역사만이 아니라 바다를 사이에 둔 육지 간의 교류와 투쟁, 해상과 육상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점에서 아시아사, 북동아프리카, 서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배제하지 않는 완전하고 편의적인 용어이다.

일본에서의 해역사의 융성은 90년대 이후의 일본사, 세계사 시리즈에서의 해역사의 비중이 증대하고 학술지와 번역서의 증가, 각지의 박물관에서의 해역사 관련 자료의 전시가 증가한 점에서 뚜렷하다. 이러한 움직임을 자극한 것은 과학연구비의 특정 영역 연구 등 경쟁적 자금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의 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의 학습지도요령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해역세계’의 동향을 강조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상의 일본 해역사 연구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무역사나 경제사 영역(상품과 생산, 상품의 유통과 소비, 무역활동과 그 시스템, 상인과 상업 네트워크), 정치 외교사(제국과 국가 간 질서, 외교 시스템, 관리와 군인, 상인, 승려, 통역 등의 외교의 담당자), 사회사(港市, 해역과 해민, 해적, 移民과 디아스포라), 문화사(문화와 종교, 기술과 정보의 전파와 교류), 해역사(국가 보다 작은 지역, 국경을 걸치는 지역,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세계), 그 외 실체적 관계와 교류의 흔적은 도자기, 직물, 동전, 배 등 문헌사학과 고고학, 미술사, 기술사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성과들은 이제까지의 부족한 연구 영역을 보충하는 의미를 벗어나 역사학의 방법론 전체를 쇄신하는 면도 갖고 있다. 먼저, 복수의 이질적 세계를 묶는 ‘넓은 구상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근대 이전의 아시아 지역은 고립되고 자급자족 경제 속에서 정체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38) 桃木至朗 編(2008), 앞의 책, pp. 1-12.

‘아시아 사회 정체론’의 근간을 부수는 ‘다양한 근대’를 준비한 독자의 역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근대 인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또 일본사에서 해역 아시아사의 위치는 기존의 일본대외관계사가 갖는 닫힌 일본으로서의 일국사관에 만족하는 시야를 극복하고 역사관찰의 시점을 쌍방향적으로 만들어 보다 좋은 세계사 혹은 아시아사 이해를 위한 방향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해역 아시아사 연구는 ‘오리엔탈리즘’의 반대로서 아시아의 특정지역의 중심성, 선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에도 반대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닫힌 틀 속에서의 인식, 즉 중심 측에서 역사를 보는 관습에 익숙한 지금까지의 동양사, 일본사에 대한 안티테제이기도 하다.

결국 해역 아시아사의 연구 경향은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세 분야란 먼저 자국사의 쇄신과 대외관계사, 해양진출사 분야, 두 번째로 동양사, 동서교섭사, 대항해시대사의 쇄신과 해역사, 마지막으로 근대사상의 쇄신과 세계 시스템, 아시아 교역권 등이다.

이상의 해역사적 접근은 앞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 소재의 제공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 방법에 대한 학문적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또 더 나아가 환동해권을 좀 더 개방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원초적인 유연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연구방법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맺음말에 대신하여—‘環東海學’을 위한 제언

이상으로 세 가지 영역에 걸쳐 환동해 문화에 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에 의해 환동해 문화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해양사적(海洋史的), 국제교류사적(國際交流史的) 시점에 대해서 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서술과 인식은 거의 육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바다에 시선을 두고 살펴보는 인식은 바다 전체를 주무대로 하는 오픈된 해양사적이며 국제교류사적 시점에 서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육지나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시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로 귀화인(歸化人), 도래인(渡來人), 유민(遺民)의 서술에서 얻는 시야이다. 지금까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지배와 피지배 혹은 상하관계 속에서만 인식되는 것이 주류였다. 하지만 실제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더 나아가 중국대륙을 오가는 사람들은 교류와 공존의 시각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세 번째로 환동해학에서 이야기하는 동해는 분리된 바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역(海域)으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된 바다로 볼 것인지에 따라 연구의 스케일과 내용물이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환동해라는 해역사(海域史)적 관점에 서서 보는 바다는 특정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전체를 인식 대상으로 하는 광폭의 시각의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영성하게라도 전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설정한 위에 환동해학의 각론으로 들어가야 일정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의 해역사연구가 좋은 모델로 기능하지 않을까?

## 참 고 문 헌

- 동북아역사재단(2010).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2010). 『고대 환동해 교류사 2부(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여수시문화원(2010). 『여수를 펼치면 세계가 보인다』. 여수문화원.  
 여수시(2010). 『여수시사 1-5권』. 동원인쇄.  
 門脇貞二(1986). 『日本海域の古代史』. 東京大学出版会.  
 村井章介(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店.  
 桃木至朗 編(2008).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小林昌二 監修(2005-2006). 『日本海域歴史大系』1-5巻. 清文堂.  
 環日本海学会 編(2006). 『北東アジア事典-環日本海圏の政治・経済・社会・歴史・文化・環境-』. 国際書院.  
 船橋洋一(2006). 『青い海を求めて』. 朝日出版社.  
 涂照彦(2009). 『環日本海研究』. 福村出版.  
 中野謙二(2011). 『北東アジアの新風-環日本海新時代の原点をさぐる』. ブックス・アイ.  
 シンクタンクせとうち総合研究機構 編(2000). ふるさとシリーズ『環日本海エリア・ガイド』.  
 シンクタンクせとうち総合研究機構.  
 日本海学推進会議 編(2001). 『日本海学の新世紀』. 角川書店.

Abstract

## Historical Consideration of Hwandonghae (the East-Sea Rim) Culture and Cultural Research Method

SONG, Whan-bhum\*

In Korea, people call this sea 'East Sea.' We have not given much thought that calling it 'East Sea' might be strange to Japanese. Although it is a familiar name to Korean, for Japanese it would be hard to locate the sea.

Considering the difference, the word 'The studies of Hwandonghae,' which might sound as a synthesis of researches of many areas, is very provocative. It is because 'The studies of Hwandonghae'' can be equipollent as The studies of Japan-Sea Rim (The Japan Sea Rim studies) for Japanese. From this kind of diametrical perspective, is it possible to expect same results for the same sea? Also doesn't activity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these days leave only structure for profit such as resources and development that speak for the country?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researches of 'the studies of Hwandonghae' or 'the studies of Japan-Sea Rim (The Japan Sea Rim studies)' as multidisciplinary research based on scientific view for overcoming limitation that the research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are open to question.

As a result, I obtained several kinds of vision as the following. First, it is about a view of ocean history and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ic description and understanding until now were mostly focusing on the land. On the other hand, the understanding focusing on sea should stand from the open view of ocean history and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 believe that doing so can free us from dichotomic view of land or center and provinces.

Second, it is a view from description of naturalized citizen, Doraein and ruined people. The understanding on people who travels between Korea and Japan was mostly evolved around domination and subject or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But it is proved that the people who traveled Korea, Japan and even China were actually

---

\* Professor,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University.



working in interaction and view of coexistence.

Third, whether East Sea, which is told in the studies of Hwandonghae, can be seen as separated sea or connected sea like seen as sea area, and it will decided the scale and content of research. On other words, the sea seen from the view of sea area history called Hwandonghae (the East Sea Rim) needs establishment of a wide view of understanding everything related to the sea instead of stories of specific sea.

Finally, working on itemized discussion of the studies of Hwandonghae after establishing an overall research method will result in regular results. In order to do so, I think Japan's research of ocean area history, which has already experienced trial and error, could function as a good model.

■ 논문투고일 : 2011년 11월 16일, 논문심사일 : 2011년12월01일, 게재확정일 : 2011년12월16일